현대 computing workload는 거대한 working set과 low locality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의 성장률은 CPU와 storage 같은 다른 디바이스의 성장률보다 뒤떨어져서 메모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데이터 할당과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각 페이지들의 메모리 접근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와 자주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구분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모리 관리를 한다면 메모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